

일본 고대사 서술에 나타난 한국인식 - ‘임나일본부’에서 ‘백촌강 전투’까지 -*

植田 喜兵成智**

-
- I. 머리말
 - II.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고대사
 - III. 임나일본부설의 흥망(興亡)
 - IV. 책봉, 군주호, 율령의 설명에 보이는 우월의식
 - V. 일본고대사 체계 속의 백촌강 전투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담론은 일본인의 한국 인식에 내재된 한국 차별 구조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그 차별 구조는 근대사에 관한 서술에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마치 ‘사실’ 처럼 담담히 설명되는 고대사에 관한 서술 속에도 그 차별 구조가 숨어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 그리고 663년에 일어난 백촌강 전투에 대한 역사수정주의자 및 역사가들의 서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의 원천이며, 오늘날까지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임나일본부설에 고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무관한 역사 사건으로 보이는 백촌강 전투도 일본의 역사 체계에서 ‘중국=일본>한국’이라는 도식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보존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역사인식, 교과서, 책봉, 율령, 신라, 당, 왜

* 본고는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민족적 과대망상과 만들어진 고대’ (2023.11.2)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 일본 早稻田大學 文學學術院 강사.

I. 머리말

최근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담론이 심각하다. 2023년 8월 31일에 일본 정부의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官房長官)이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에서 조선인 학살을 기록한 공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¹⁾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불성실한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학계와 시민들의 활동으로 관동대지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동향을 무시하는 부실한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담론은 한국과 관련된 서술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식민지 은혜론',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부정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실증연구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학문적으로는 계속 부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망언은 연이어 재생산되고 있다.³⁾ 전에는 역사수정주의 담론이 작고 한정된 커뮤니티에서만 발신되었고 공유되었는데, 최근에는 공적 영역에도 널리 유포된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 담론은 일본인의 한국 인식에 내재된 한국 차별 구조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그 차별 구조는 근대사에 관한 서술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마치 '사실' 처럼 담담히 설명되는 고대사에 관한 서술 속에도 그 차별 구조가 숨어 있다. 따라서 이 차별 구조를 해체하려면 고대 한국에 관한 서술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찍이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일본인의 한국인식, 한국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⁴⁾ 즉 한국의 역사를 타율성(他律性), 정체성(停滞性),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식민주의적 역사인식이다. 그리고 하타다는 이러한 역사인식이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만들어낸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상의 木戸(孝允)·澤(宣嘉)·佐田(素一郎)·森山(茂) 등의 말에 따르면 朝鮮은 무례한 나라, 일본의 威武를 보여줘야 할 나라, 불평무사不平武士들을 이주시켜야 할 나라이자 러시아가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제압해야 할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근대 일본인들은) 대등한 國交國交를 맺어야 할 상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朝鮮에 대한 일본의 우월적 지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의식의 배경에는 조선은 예로부터 일본의 속국屬國이었다는 생각이 존재했다.⁵⁾

그는 근세(近世) 이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우월의식을 형성하던 원동력이 된 고대 역사상(歷史像) 중 하나가 신공황후(神功

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記録なし」の見解崩さず 松野官房長官」, 『東京新聞』2023.9.1. <https://www.tokyo-np.co.jp/article/274239>

2) 대표적 연구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山田昭次, 2003; 姜徳相, 1975.

3) 관련 연구는 다음의 글을 참조. 高崎宗司, 2014; 梁英聖, 2016.

4) 旗田巍, 1981, 5-24쪽.

5) 旗田巍, 1969, 18쪽.

皇后)의 삼한정벌(三韓征伐) 전설이었다.⁶⁾ 고대에 관한 사건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의 고대 역사인식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시(李成市)는 근대 일본인의 역사인식을 추구하여 한국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혀냈다.⁷⁾ 그는 메이지 유신(明治 維新)과 다이카 개신(大化 改新), 이와쿠라 건구사절단(岩倉 遣歐使節團)과 건당사(遣唐使), 일본의 한국 침략과 임나일본부 등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근대 일본인들은 당시의 상황을 고대에 투영하여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근대의 사건뿐만 아니라 고대의 사건에 대해서도 근대 일본인의 인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조직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의 역사교과서가 있다. 이를 분석한 김영이(金瑛二)는 ‘つくる會’의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고대에 대한 서술 분량이 유난히 많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상세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⁸⁾ 왜 역사수정주의자들이 고대 사건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과서와 통사(通史)에서 어떻게 고대사를 서술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 그리고 663년에 일어난 백촌강 전투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의 원천(源泉)이며, 오늘날까지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임나일본부설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백촌강 전투는 일본의 역사 체계에서 큰 전환점으로 파악되어 왔다. 얼핏 보면 백촌강 전투는 임나일본부설과 별개로 논의해야 할 문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노태돈의 지적이 주목된다.

백강구 전투의 의의를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관가름하는 결정적 회전이었고 고 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즉 이 전투의 주력이 당군과 왜군이었음을 강하게 의식하여, 마치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과 대비하여 고대 중국세력과 일본 세력이 한반도에서 자웅을 겨룬 전투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전투의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다.⁹⁾

백촌강 전투를 근대의 청일전쟁(淸日戰爭)과 비교하여 파악하려는 태도가 일본 연구자들에게 존재한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백촌강 전투는 신라, 백제 등 고대 한국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그 서술에 일본인의 한국인식이 투영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백촌강 전투는

6) 李成市, 2018, 33-66쪽.

7) 李成市, 2018, 3-17쪽.

8) 金瑛二, 2007 ; 이외에도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로서 다음의 글을 참조. 鄭在貞, 2001 ; 延敏洙, 2010.

9) 노태돈, 2009, 190-191쪽.

임나일본부설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임나일본부설과 백촌강 전투 담론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고대사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한국에 대하여 어떤 담론을 전개해 왔는지 살펴보자. 2000년 대 전후에 일본에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활동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つくる會’의 활동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つくる會’는 1945년 이후 일본의 역사학 및 역사교육에 나타난 역사인식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 규정하였고 이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역사수정주의적인 담론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つくる會’의 교과서에서 나타난 고대사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¹⁰⁾

일본 열도 사람들은 원래 귀중한 자원인 철(鐵)을 얻기 위하여 한반도 남부와 깊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야마토 조정(大和朝廷)은 바다를 건너 한국에 출병(出兵)하였다. 이때 야마토 조정은 한반도 남부의 임나(가라)라는 곳에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¹¹⁾

이에 따르면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어떤 거점을 두었음이 암시된다. 이는 과거의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이어받은 서술임은 분명하다. 후술하겠지만, 임나일본부설 자체는 학문적으로 부정되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다른 일반적인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서술이 사라졌다.¹²⁾ 이렇게 보면 ‘つくる會’의 교과서는 과거의 학설을 바탕으로 한국사 관련 서술들이 쓰인 것 같다.

이후 ‘つくる會’는 분열되었다. 그 계보를 이은 두 종류의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육봉사(育鵬社)와 자유사(自由社)의 교과서가 그것이다. 각각 ‘つくる會’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 고대 한일 관계를 설명한다. 육봉사 교과서부터 살펴보자.

5세기 초에 세워진 고구려의 호태왕(광개토왕)비에는 우리나라(인용자 주:일본)와 고구려 사이에 전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비문(碑文)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임나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¹³⁾

10) 「新しい歴史教科書」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金瑛二, 앞의 글, 2007.

11) 藤岡信勝 외, 2005, 28쪽.

12) 延敏洙, 2010.

13) 伊藤隆·川上和久 외, 2022, 5쪽.

전반적으로 육봉사의 교과서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서술은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야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임나’를 사용하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임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임나일본부’의 이미지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다.¹⁴⁾

다음으로 자유사의 교과서를 살펴보자.

백제는 야마토 조정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야마토 조정은 한국에 출병하였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 비문에는 왜국이 한때 신라와 백제를 신민(臣民)으로 삼아 고구려와 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¹⁵⁾

자유사 서술은 더 노골적이다. 고대 한일 관계에 관하여 광개토왕비의 기록을 근거로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한때 신민으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확실히 이는 1945년 패전(敗戰) 이전의 일본인들이 한반도 및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의 근거로 광개토대왕비를 활용한 방식의 변종(變種)이다.¹⁶⁾ 전반적으로 자유사의 교과서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였다는 뉘앙스를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기존의 임나일본부설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백촌강 전투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언급이 없다. 이는 일본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회피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작가 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의 일본 고대사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쿠타는 원래 방송국 작가였다가 나중에 소설가로 데뷔하였다. 소설가 활동을 통하여 하쿠타는 역사 수정주의적인 담론과 혐한(嫌韓)적인 글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궁극적인 형태가 『일본국기(日本國紀)』라는 통사(通史) 책이다.¹⁷⁾ 현재 일본 보수주의 문단(文壇)에서 하쿠타는 베스트 셀러 작가이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그 책에는 임나일본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변한(弁韓)이라는 지방에 군대를 진출시켜 369년에는 신라와 싸워 백제를 종속(從屬)시켰다. 그리고 변한을 임나로 명명(命名)하였다.¹⁸⁾

위의 서술이 무엇을 근거로 쓰인 글인지 명시되지 않지만 광개토왕비에 ‘왜(倭)가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도 역시 과거의 임나일본부설을 계승한 서술로 추정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혐한적이며 음모론(陰謀論)적인 서술

14) 田中俊明, 1992, 37-38쪽.

15) 藤岡信勝 외, 2022, 43쪽.

16) 李成市, 2018, 111-156쪽.

17) 百田尚樹, 2018.

18) 百田尚樹, 2018, 22쪽.

도 있다.

한국 학회는 고대에 일본이 임나를 지배하였다는 사실도 못마땅하게 여겼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일본 학회에 요구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역사교과서에는 한국을 배려하여 일본의 임나 지배에 대한 서술이 없다.¹⁹⁾

책 전체를 통하여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였다는 노골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로 말미암아 하쿠타는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였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촌강 전투에 대해서는 고대 일본군이 패배한 사실을 쓴 후 백제 구원군을 파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야마토 조정에게 백제 방어가 그만큼 중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나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백제는 일본의 식민지와 비슷한 존재였다는 것이다.²⁰⁾

이렇게 백제가 고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추측한다. 하쿠타는 패배한 백촌강 전투조차도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 근거로 삼았고, 일본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한 것이다.

하쿠타를 비롯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왜 이런 담론을 펼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시사하여 주는 설명이 있다. 하쿠타는 『「일본국기」 부독본(「日本國紀」の副讀本)』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자신의 저서 『일본국기(日本國紀)』를 보완하였다. 이 책에서 하쿠타는 아리모토 가오리(有本香)라는 극우 언론인과의 대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쿠타 자학사관 교육에서 심각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거의 무관할 것 같은 고대사, 중세사까지 우리 세대가 배운 교과서의 서술과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리모토 『일본국기』에도 나오네요. 예를 들면 임나(일본부). 이것은 4세기경 고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배웠을 때는 역사교과서를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²¹⁾

옛날 학교 교육에서는 가르쳤던 과거의 학설, 즉 임나일본부설은 현재에는 가르치지 않는

19) 百田尚樹, 2018, 24쪽.

20) 百田尚樹, 2018, 46쪽.

21) 百田尚樹·有本香, 2018, 46-48쪽.

다고 한다. 앞에서 인용한 부분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원인이 한국의 항의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다. 위의 구절은 본래 ‘올바른’ 임나일본부설이 부당하게 부정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학설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일본>한국’의 구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서 이토록 과거 학설은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문제가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일까 의심스럽다.

Ⅲ. 임나일본부설의 흥망(興亡)

다음으로 임나일본부설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살펴보자.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이 한반도 남부인 가야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다는 학설이다. 그 근거로 『일본서기』, 왜오왕(倭五王)을 기록한 『송서(宋書)』, 광개토왕비 등의 기록이 활용되었다. 근대 일본은 일선동 조론의 일환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는 근거로 그 학설을 활용하기도 하였다.²²⁾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황국사관(皇國史觀) 등을 비판하면서 고대사 인식 및 한국 인식도 다시 검증을 받게 되었다. 임나일본부설도 재검증을 통하여 그 존재가 학계에서 부정되었다.²³⁾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1970년대 후반에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가 없어졌고, 광개토왕비를 근거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였다는 설명도 점차 사라졌다.²⁴⁾ 따라서 일본 학계에서 임나일본부설이 여전히 지지받고 있거나 일본 사회 전체가 임나일본부설을 믿고 있다는 등의 담론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수정주의자들 사이에는 임나일본부설이 통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 학설을 믿는 이들도 있다.

이 문제는 1945년 패전 이후에도 일본 역사학의 대가(大家)들이 임나일본부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계속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라는 가야사의 통사를 저술하였다.²⁵⁾ 이 책은 임나일본부의 실재가 전제로 구성된다. 또한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는 『증보판 조선사개설(增補版 朝鮮史概說)』에서 ‘씨족국가의 성장과 일본·고구려의 남선경영(氏族國家の成長と日麗の南鮮經營)’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였다.²⁶⁾ 분명히 임나일본부가 존재하였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스에마쓰와 미시나는 1945년 이전부터 활동한 역사 연구자이며, 그들은 패전 이전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으로 판단된다.

22) 旗田巍, 1981, 5-24쪽 ; 李成市, 2018, 3-17쪽 ; 임지현, 2004, 17-34쪽.

23) 임나일본부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연구사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田中俊明, 1992.

24) 延敏洙, 2010, 454쪽.

25) 末松保和, 1996, 1-181쪽.

26) 三品彰英, 1952, 49-54쪽.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1945년 이후의 역사학을 주도한 일본사, 동양사 연구자들도 임나 일본부설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시모다 쇼(石母田正)는 고대 일본을 ‘동이의 소제국(東夷の小帝國)’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은 조선 각국을 조공국(朝貢國)으로 예속(隸屬)시키려고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중국에 조공하는 복합적인 지배-피지배 질서가 성립되어(중략) 3세기의 야마대국邪馬台國 및 야마토 왕권과 왜오왕(倭五王) 이후의 국가를 구분하는 기본적 특징은 국내 체제를 제외하면 후자가 남조선의 이른바 '임나'를 기점으로 백제-신라 등을 조공국으로 예속시키는 소제국(小帝國)으로 전환하려는 일관된 정책에 있다.²⁷⁾

이에 따르면 이시모다의 논의는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였다는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인정한 것 같다.²⁸⁾ 현재의 일본 고대사 학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 이 학설이 임나일본부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사 연구자인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동아시아 세계론(東アジア世界論)’을 제기하여 일본의 동양사 및 일본사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니시지마는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전에는 임나를 와타노미야케(ワタノミヤケ) 또는 우치즈미야케(ウチツミヤケ)로 직접 지배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멸망한 후 그 관계는 신라-백제와의 조공 관계만 남게 되었고(후략)²⁹⁾

위의 구절에 이어 니시지마는 고대 일본이 신라와 백제를 조공국으로 삼아, 신라와 백제의 위에 군림한 일본을 중심으로 ‘소책봉체제(小冊封体制)’가 형성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한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가 일본이 한때 ‘임나’를 지배하였다는 인식이다.

이처럼 고대 일본의 특징에 대하여 임나일본부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서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은 일국사관(一國史觀)을 극복할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³⁰⁾ 그러나 이 학설 역시 임나일본부설을 수용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역사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니시지마가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 사회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완전히 타파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27) 石母田正, 1989, 6-7쪽.

28) 李成市, 2018, 61쪽.

29) 西嶋定生, 2000, 67쪽.

30) 李成市, 2000.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1945년 이후 일본 역사학계가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였고 그 존재를 부정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역사교육 차원에서 1970년대에 역사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1945년 이후에 큰 영향을 끼친 연구자나 학설은 임나일본부설을 수용하였다. 이는 그들이 1945년 이전에 학문적 훈련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사수정주의자들이 과거의 학설을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야쿠타와 아리모토의 대담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에 대한 지식수준에서 그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IV. 책봉, 군주호, 울령의 설명에 보이는 우월의식

현행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은 사라졌다. 그렇기에 세대가 지날수록 임나일본부설을 근거로 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의식도 약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현실은 역사수정주의적인 담론이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다. 비록 임나일본부설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담론에 일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술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책봉(冊封)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자. 일본 역사에서 중국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책봉을 받은 일본 군주(君主)는 많지 않다. 책봉을 받은 대표적인 군주는 왜 오왕이다. 5세기에 5명의 왜왕이 남조(南朝) 송(宋)에 조공하여 송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사 연구자들은 이 책봉을 일본 고대 국가 성립 과정의 전단계(前段階)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로 견수사(遣隋使)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자.

607년에 일본은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나라 황제에게 국서(國書)를 보냈다. 이 국서에서 일본의 군주는 ‘천자(天子)’를 칭하고 수나라의 ‘천자’에게 ‘치서(致書)’한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를 하는 교과서나 개설서 등이 있기는 하나,³¹⁾ 다음과 같은 이해가 일반적이다.

왜국의 입장에서 보면, 5세기 중국과의 책봉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수나라에 대한 외교를 맺으려 한 것이다.³²⁾

31) 帝國書院의 『社会科 中学生の歴史』에는 “수나라의 선진적인 정치 구조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정식 국교를 맺으려 했다” (33쪽)고 서술되어 있다. 教育出版社 東京書籍의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대등한 외교를 지향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32) 吉村武彦編, 2020, 122쪽.

‘천자’나 ‘치서’라는 용어가 대등한 관계의 국가 간에 쓰인다는 것을 알아서 일부러 수나라 황제에게 이런 국서를 보낸 것이다. 이는 일본의 중국 왕조에 대하여 이른바 대등한 외교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다.³³⁾

일본 군주가 중국 군주와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 대등 관계였다고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이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자존심을 함양(涵養)시키는 원천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왜오왕의 책봉 문제를 ‘자립(自立)’ 과 대비하여 ‘비자립(非自立)’ 으로 보는 관점이 극단화되면 일본이 책봉받은 사실조차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역사수정주의적인 저작들을 발표하는 야와타 가즈오(八幡和郎)는 책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관계였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들을 ‘자학사관’ 을 가진 틀린 이들로 주장한다. 그는 책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도 조선과 같이 책봉체제 하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학사관을 가진 이들은 이런 경위를 조금 더 공부할 해야 할 것이다. 짐작건대 책봉체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한일 양국이 역사적으로 대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권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배려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³⁴⁾

고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본이 중국에 비하여 열등(劣等)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를 포함한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들의 자존심을 훼손한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동격(同格), 대등하다는 담론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것 및 한국과 대등관계였다는 것이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러한 책봉 이해가 한국에 대하여 적용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성을 강화하는 서술이 된다. 바로 고전적 ‘타율사관’ 이 그것이다.

신라는 이 반도 영유의 실리를 얻기 위하여 당에게 종주국(宗主國)의 명예를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31대 신문왕(神文王)은 당 고종으로부터 봉책(封冊)을 받아 신라왕이 되었으며, 이후 신라 왕위에 관한 관례가 되었다. (중략) 신라국은 원하던 원치 않든 필연적으로 사대주의(事大主義)를 취하여 반도(半島)사적 본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³⁵⁾

33) 坂元義種, 1993, 77-80쪽.

34) 八幡和郎, 2020, 38쪽.

35) 三品彰英, 1952, 62쪽.

(신라의) 통일은 신라가 중국 왕조의 권위와 그 질서에서 분리 독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신라 한 나라만 대표하여 당나라의 책봉 체제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³⁶⁾

일본은 당나라의 책봉체제에 편입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당과 일본의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당과 신라-고구려-백제와의 관계, 혹은 당과 발해와의 관계와는 성격이 달랐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일본은 당제국(唐帝國)의 책봉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조공국으로서 위치하였으며, 견당사(遣唐使)는 번객(蕃客)의 예우로 대접받았다. 그리고 일본 역시 조공의 예를 통하여 당나라의 질서에 접근하려고 한다. 따라서 당의 문물제도(文物制度)는 책봉관계로 인한 타율적 규제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 내에서 주체적으로 섭취된다.³⁷⁾

이렇게 ‘책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후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전개가 달라지게 된 것처럼 서술한다. 책봉을 받은 신라를 비롯한 역대 한국 왕조는 중국의 영향을 회피할 수 없는 ‘타율적’인 존재가 되었다. 한편 책봉을 이탈(離脫)한 일본은 ‘주체적’으로 중국 왕조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논하는 경향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출간된 한국 통사에 다음과 같은 서술도 그 변종으로 보인다.

이민족(異民族)은 조공을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였고, 중국의 역법(曆法)과 연호(年號) 사용을 강요받는 등 ‘시간의 지배’도 받아들여야 하였다. 한반도, 베트남, 유구(琉球) 등에 세워진 왕조들은 이러한 국제질서에 따라 중국 황제에게 신하(臣下)의 예의를 다하였다.³⁸⁾

책봉을 완전히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보는 것 같다. 게다가 위의 구절에 이어 조선왕조는 “중국 황제의 지시로 국호를 조선으로 바꿨다”고 서술한 부분도 있다.³⁹⁾ 지극히 타율사관적인 서술이다. 그러나 전근대 역사를 살펴볼 때 책봉은 근대적인 ‘중주국-식민지’ 관계처럼 파악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다. 위의 서술에 보이는 책봉 이해는 역사를 설명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역사학 이외의 전문가도 집필에 참여한 한국학 입문서의 하나이다. 입문서에 이런 서술이 있다는 것은 우려해야 한다.

이러한 ‘책봉’ 이해에서 중국-한국-일본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중국=일본>한국’이라는 도식이 성립된다. 즉 자세한 책봉에 대한 설명 없이 피상적인 책봉 이해

36) 西嶋定生, 2000, 87쪽.

37) 西嶋定生, 2000, 94쪽.

38) 新城道彦 외編, 2019, 6-7쪽.

39) 新城道彦 외編, 2019, 6쪽.

를 바탕으로 한 설명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 형성에 기여해 버리는 것이다.

위의 책봉에 관한 서술을 통하여 일본의 우월의식이 엿보이는데, 그 외에도 우월의식 형성과 관련된 용어는 존재한다. 군주호도 그중 하나다. 일본에서는 7세기 말부터 8세기에 걸쳐 군주 호칭으로 '천황(天皇)'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말은 중국의 '황제'에 필적(匹敵)하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의 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을 사용한 것을 논할 때 한일 관계의 설명에 독특한 맥락이 생긴다.

'천황' 호 제정과 동시에 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라는 칭호와 지위가 정해졌다. 이는 중국 왕조의 황제-황후-황태자라는 일련의 칭호를 의식한 것임이 분명하다. 반면 신라 등의 나라에서는 왕, 왕비, 태자(세자世子)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황후-황태자와 함께 사용된 '천황' 호는 신라 등의 왕보다 격이 높고 황제호에 준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천황의 '황(皇)'은 황제와 통하는 것이다.⁴⁰⁾

즉 '황제=천황>왕'이라는 도식이 성립된다. 이는 앞서 말한 '중국=일본>한국'의 도식과 똑같은 구도이다. 이 도식을 바탕으로 7-8세기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에 대하여 신라가 일본에 '조공' 하였다는 역사인식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율령(律令) 문제도 일본 우월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일본의 율령제 연구를 회고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주목된다.

일본 율령(律令)에 관한 근대적 연구는 19세기 말에 주로 법제사(法制史) 분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메이지 유신(明治 維新)의 왕정복고(王政復古)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당시 막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을 고대 율령에 비유하여 이를 연구함으로써 일본의 '국체(國體)'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⁴¹⁾

율령제 연구자인 오스미 기요하루(大隅清陽)에 따르면, 고대 일본이 독자적인 율령을 제정한 것은 근대 일본의 근대화에 비교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일본이 독자적인 율령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한국과 비교한 다음과 같은 서술도 있다.

일본이 신라와 달리 체계적인 율령법전(律令法典)을 편찬한 이유로 먼저 추정되는 것은 신라가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데 비하여 일본은 당나라의 책봉을 받지 않았다는 국제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략) 일본의 고대 귀족들이 신라보

40) 熊谷公男, 2001, 339-340쪽.

41) 大隅清陽, 2017, 147쪽.

다 더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자 할 때 중국 율령을 모방한 율령을 편찬하여 중국적인 율령제를 형성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을 구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⁴²⁾

이처럼 일본이 독자적인 율령을 편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대 율령도 앞서 언급한 중국 왕조의 책봉을 전제로 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한편 신라에서 독자적인 율령을 편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라가 일본보다 열등(劣等)하다는 해석을 낳았고, 나아가 근대화로 비유되는 율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라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일본의 고대사 서술에는 한국에 대하여 일본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장치가 많다. 이들은 과거의 임나일본부설처럼 노골적인 것은 아니다. 세련된 필치(筆致)로써 ‘사실’로만 서술된 고대사의 일들은 일본 사회의 담론에 녹아들어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본 사회에는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일본 고대사의 체계 속에서 체득(體得)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V. 일본고대사 체계 속의 백촌강 전투

마지막으로 백촌강 전투를 살펴보자. 663년에 일본과 백제 연합군이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게 패배하였다. 이 패배는 어떻게 일본 고대사의 체계 속에서 규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663년 (천지2) 8 월에 우리(인용자주:일본) 구원군은 당-신라 연합군과 백촌강구(白村江口)에서 싸우다가 참패하고 마지막 백제 왕 풍장(豊璋)은 고구려로 도망쳤다. 우리 구원군은 백제의 유신(遺臣)들을 데리고 반도에서 철수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의 일본 세력은 일소되었고, 수 세기에 걸친 반도 경영은 이곳으로 막을 내렸다.⁴³⁾

662년에는 백제의 요청에 따라 구원의 대군(大軍)을 파견하였으나, 당군과 백촌강에서 싸우다가 패퇴하여 백제가 멸망했기 때문에 임나관가(任那官家) 부흥 공작도 막을 내렸다.⁴⁴⁾

42) 吉田孝, 1983, 29-30쪽.

43) 坂本太郎編, 1958, 84쪽.

44) 中村榮孝, 1966, 36쪽.

이 백촌강의 패배로 백제 부흥운동은 궤멸하였다. (중략)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의 일본 세력도 임나 멸망 이후 백 년 만에 최종적으로 소멸된 것이다.⁴⁵⁾

세 가지 서술들은 일본 세력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고 언급하는데, 단순히 구원군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즉 임나일본부의 한반도 지배를 사실로 보아, 그 일본의 지배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맥락에서 백촌강 전투를 설명하였다.

또한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백촌강 전투를 포함한 백제구원전쟁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수나라 양제(煬帝)에게 보낸 국서의 문장이 신빙성이 있고, 그로 인해 당시의 대외적 자주관념(自主觀念)의 발향(發揚)으로 여겨지는 한, 이 조칙(詔勅)(인용자 주: 『일본서기』 제명(齊明) 6년 10월 조의 백제구원군을 파견할 때 조칙)의 의미 역시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사해군림(四海君臨)의 제왕(帝王)으로서의 자존(自尊)적 태도의 확립으로 해석해야 한다.⁴⁶⁾

그는 이 구절에서 일본이 제왕적 위치에 군림하였고, 중국에 필적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앞서 언급한 노태돈의 견해와 부합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 후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평가 기준은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종식된 사건이라는 평가, 그리고 당에 대항하는 태도를 표명하였다는 평가이다. 다음으로 두 가지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서술을 살펴보자.

왜는 당·신라에 대하여 끈질긴 저항을 펼치는 구(舊) 백제 세력의 백제 부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군을 파견하였으나, 663년에 백촌강 전투에서 당·신라 연합군에게 대패하였다. 이후 신라가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676년에 한반도를 통일하였다.⁴⁷⁾

나카노오에노오지(中大兄皇子)는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군을 보냈으나 663년에 백촌강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게 패배하여 일본은 한반도에서 물러났다. 이후 당과 신라는 연합하여 고구려를 무너뜨렸고, 신라는 당의 세력을 몰아내어 한반도를 통일하였다.⁴⁸⁾

45) 西嶋定生, 2000, 80쪽.

46) 末松保和, 1996, 251쪽.

47) 笹山晴生·佐藤信·五味文彦·高埜利彦 외, 2017, 39쪽.

48) 小風秀雄 외, 2018, 27쪽.

이들에 따르면, ‘일본의 패전 → 신라의 통일’이라는 순서로 서술된다. 두 사이에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지만, 일본 세력이 후퇴하거나 소멸하여 그 대신 신라가 한반도를 영유하게 되었다는 맥락에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나 일본부의 지배가 종식 되어 신라가 이를 대신하여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며, 일본의 철수로 인하여 신라가 통일한 것처럼 서술된다. 이런 서술은 입나일본부설의 잔재(殘滓)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백촌강 전투의 대립 구도는 ‘왜·백제=당·신라’라는 대조적인 도식으로 읽힌다. 이는 스에마쓰도 언급했듯이 백촌강 전투가 당나라와 대등한 일본, 즉 중국과 일본이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대립 구도는 백제와 신라가 각각 일본과 당의 ‘종(從)’과 같은 입장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중국=일본>한국’이라는 구조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백촌강 전투의 패배에 대한 의미는 입나일본부설의 영향이 숨어 있다. 모든 교과서가 이 백촌강 전투의 패배를 고대 일본이 율령국가(律令國家), 그리고 천황제(天皇制)의 성립의 계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 고대사 전문가 모리 기미유키(森公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백촌강 전투는 일본 고대 최대의 대외전쟁이자 대패한 전투였으며, 현재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 기간을 제외하면 일본이 외국에 점령당할 위험이 가장 높았던 패전이다.⁴⁹⁾

이에 따르면 백촌강 전투를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패배하였다는 사실에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 패배를 겪은 일본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라가 대당전쟁(對唐戰爭)을 수행함으로써 왜국이 얻은 것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전쟁 덕분에 당·신라의 침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왜국에게 율령국가 건설의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따라 신라가 ‘조공’의 형태로 통교(通交)를 원하였기에 많은 문물이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대국(大國)’으로서 왜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제국(諸國)을 종속국으로 규정하는 대외인식이 형성된 것이다.⁵⁰⁾

그는 일본이 패전을 통하여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때 일본은 율령제, 천황제를 성립시켰고 중국으로부터 책봉과 결별하게 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로 활용된 것이다. ‘대전환’으로서 백촌강

49) 森公章, 1998, 12쪽.

50) 森公章, 1998, 211쪽.

전투는 비록 일본이 패배했다고 해도 일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제자이자 1945년 이후의 일본 고대사학계를 이끈 사카모토 다로(坂本太郎)는 율령제와 백촌강 전투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으면서도 항상 일본의 국정(國情)에 적합하도록 배려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한 당시 위정자(爲政者)의 시야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국정에 상관없이 새로운 미국의 법을, 헌법을 비롯한 각 법전에 이식(移植)한 것과 비교하면 깊은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옛날 율령 제정 당시는 이른바 백제 구원을 위하여 한반도에 출병한 일본군이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게 대패하여 그때까지 한반도에 가지고 있던 권익(權益)을 한순간에 잃은 때입니다. 연합군은 여세를 몰아 언제 일본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자이후(大宰府)에 미즈키(水城)을 쌓고, 산성(山城)을 쌓는 등 국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입니다. 일본의 옛 제도는 모두 나쁘다, 새로운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야만 대항할 수 있다고, 마음이 약한 지식인이라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패전 당시 지식인의 입장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율령편수(律令編修) 당시 지식인들의 당나라 율령 도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오늘의 교훈(教訓)으로 삼고 싶습니다.⁵¹⁾

흥미롭게도 당나라로부터 계수(繼受)한 율령을 1945년 패전 이후의 일본 헌법(憲法)에 비유하였다. 이와 동시에 백촌강 전투에서 당나라에 대한 패배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대한 패배에 비유하였다. 패전 후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이야기는 1945년 이후의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서술이었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백촌강 전투에 대한 평가는 과거의 임나일본부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의 종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리고 임나일본부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촌강 전투는 그 평가가 변화하면서도 일본 고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백촌강 전투를 둘러싼 한국을 깔보는 인식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사실 일본 역사 체계 속에 있는 이런저런 서술은 한국에 대한 차별 구조가 내포된 채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담론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51) 坂本太郎, 1989, 12쪽.

Ⅵ. 맺음말

이상에서 임나일본부설과 백촌강 전투를 중심으로 일본 고대사 체계 속의 한국인식을 분석하였다. 1945 년의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과거의 황국사관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역사관’은 과거의 ‘중국=일본>한국’이라는 도식을 보존시켜 버렸다.

본고의 주장은 새로운 의견이 아니다. 이미 이성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른바 한일관계사라 불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근대 일본인이 근대의 콘텍스트에 끌어당겨 고대의 여러 문헌을 읽고 거기에서 표상화한 역사 상(像)은 오늘날 그다지 큰 수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계속 살아있다. 전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얻어진 ‘역사적 사실’이 부분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연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⁵²⁾

위의 논고 발표가 1995 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30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일찍이 일본인의 역사인식에 한국에 대한 차별구조가 있다고 지적한 하타다 다카시의 논고가 발표된 지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담론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심각하다. 역사 연구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다. 일본에 사는 한국사 연구자로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담론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차별 구조를 내재한 일본 고대사의 체계를 해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투고일: 2024.05.15, 심사개시일: 2024.06.03, 게재확정일: 2024.06.10.]

52) 李成市, 2018, 155쪽.

【참고문헌】

(국문)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임지현, 「고구려사의 딜레마-‘국가주권’과 ‘역사주권’의 사이에서」,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2004.

(일문)

『東京新聞』

姜徳相, 『関東大震災・虐殺の記憶』, 青丘文化社, 2003.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観』, 勁草書房, 1969.

旗田巍, 『朝鮮史像の諸問題』, 『新朝鮮史入門』, 龍溪書舎, 1981.

高崎宗司, 『定本「妄言」の原形 日本人の朝鮮観』, 木犀社, 2014.

吉田孝, 『律令国家と古代の社会』, 岩波書店, 1983.

吉村武彦編, 『新版 古代史の基礎知識』, 角川選書, 2020.

金瑛二, 「日本の歴史教科書における朝鮮史の記述」, 『研究論集<河合文化教育研究所>』4, 2007.

藤岡信勝 외, 『新しい歴史教科書 [改訂版]』, 扶桑社, 2005.

藤岡信勝 외, 『中学社会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2022.

大隅清陽, 「律令制の比較史」, 『日本古代交流史入門』, 勉誠出版, 2017.

末松保和,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4』, 吉川弘文館, 1996.

百田尚樹, 『日本国紀』, 幻冬舎, 2018.

百田尚樹·有本香, 『「日本国紀」の副読本: 学校が教えない日本史』, 産経新聞出版, 2018.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創史社, 2003.

森公章, 『白村江以後』, 講談社, 1998.

三品彰英, 『朝鮮史概説 増補版』, 弘文堂, 1952.

西嶋定生, 『古代東アジア世界と日本』, 岩波書店, 2000.

石母田正, 「日本古代における国際意識について」, 『石母田正著作集 第四巻』, 岩波書店, 1989.

小風秀雄 외, 『新選日本史B』, 東京書籍, 2018.

新城道彦 외 編, 『知りたくなる韓国』, 有斐閣, 2019.

笹山晴生·佐藤信·五味文彦·高埜利彦 외, 『詳説日本史B』, 山川出版社, 2017.

延敏洙, 「日本歴史教科書の古代史叙述体系と民族・天皇問題」, 『第2期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教科書小グループ編)』, 日韓文化交流基金, 2010.

梁英聖, 『日本型ヘイトスピーチとは何か』, 影書房, 2016.

熊谷公男, 『大王から天皇へ』, 講談社, 2001.

- 伊藤隆·川上和久 외, 『最新 新しい日本の歴史』, 育鵬社, 2022.
- 李成市,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2000.
- 李成市, 『闘争の場としての古代史』, 岩波書店, 2018.
- 田中俊明, 『大伽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 鄭在貞, 「韓国から見た日本の歴史教科書」, 『季刊 戦争責任研究』31, 2001.
- 中村栄孝, 『日本と朝鮮』, 至文堂, 1966.
- 坂本太郎 編, 『世界各国史ⅩⅣ 日本史』, 山川出版社, 1958.
- 坂本太郎, 「大化改新と律令制定」, 『律令制度 坂本太郎著作集第七巻』, 吉川弘文館, 1989.
- 坂元義種, 「東アジアの国際関係」,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2巻 古代1』, 岩波書店, 1993.
- 八幡和郎, 『365日でわかる世界史』, 清談社, 2020.

【Abstract】

Imagining Ancient Korea in the Japanese Historiography

Ueda Kiheinarichika(Waseda University)

The revisionist narratives of history in Japan are caused by the discriminatory structures embedded in Japanese prejudice against Korea. The discriminatory structure is frequently found in narratives about modern history. However, it is also hidden in narratives about ancient history, which are often explained as if they were 'facts.'

This article examines revisionist and historian narratives about the ancient Japanese domin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o-called Mimana Nihonfu, and the Battle of Hakesukinoe in 663. The research shows that Mimana Nihonfu is the source of Japan's sense of superiority over Korea, and that revisionists cling to it to the present day. The Battle of Hakesukinoe, which seems to be unrelated to the discriminatory structures, was also found to have a function in promoting Japan's sense of superiority over Korea in the Japanese historical system.

Keywords : historical understanding, textbook, Tributary system of China, Ancient law system, Silla, Tang, Japan